Ready to Wear 컬렉션에 나타난 Mix & Match 패션 경향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Garçons을 중심으로-

Mix & Match Fashion Trend Expressed in the Ready to Wear Collection

- Focused on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Garçonson -

김선아*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산업전공

Kim, Sun Ah *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Mix & Match fashion trend expressed in the Ready to Wear collections shown in 27 collections of 3 designers(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Garçons) over the past five years from 2007S/S to 2011S/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characteristics were a combination of past and modern, the past and past prominent fashions combined at a different time, these styles and details were seen in Alexander McQueen's collection. 2) The properties of combination were expressed as a clash of cultures, such as East and West or African and European.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binations were expressed by differences in purpose, such as outer garments or underwear. 4) Artistic combinations of Mixing & Matching happen through a component confusion of art and garments. 5) The characteristics of Mixing & Matching fashion were expressed in images, especially in the case of Jean Paul Gaultier.

Keywords: ready to wear, mix and match fashion,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Garçons

I. 서론

다양성의 화두로 시작된 21세기는 급진적 상호교류의 정보화시대로 발전되면서 이에 따른 생활양식과 문화의 변화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는 표현된 문화와 내재적 문화의 유형으로 구성되어지며, 다양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패션이란 표현된 문화의 한 체계라 할 수 있다(간문자, 1995).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다원화 현상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상대적인 동시에 수평적인 다양성

을 중시하는 태도로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층 간의 위계와 경계가 와해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주연, 이효진, 2005).

21세기의 패션 또한 다문화적 요소가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탈 형식, 다문화적 요소, 다원주의 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절충주의, 크로스오버, 퓨전 등으로 분석되었으나(임영자, 권진, 2002), 기존의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21세기의 패션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

* Corresponding author: Kim, Sun Ah
Tel: 063-850-6644, Fax: 063-850-6646
Email: ksa@wku.ac.kr

는 경향이 바로 믹스 앤 매치(Mix & Match) 패션이라 하겠다.

믹스 앤 매치 관련 연구는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패션분야와 디자인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컬렉션에서 추출한 경우로서 그 숫자가 미비하거나, 분석된 작품의 수치적 정보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연구대상에 대해 'Haut Couture'와 'Ready to Wear' 컬렉션을 구분지어 진행된 연구는 전무하며, 디자이너별 세부조사를 통한 종적인 믹스 앤 매치 스타일 분석 또한 매우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ady to Wear 컬렉션을 중심으로 디자이너별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1세기 패션의 대표적 현상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믹스 앤 매치의 개념과 사회, 문화적 발전배경 및 표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두 번째, 믹스 앤 매치 표현 속성에 따라 Ready to Wear 컬렉션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의 유형을 알아본다.

세 번째, 컬렉션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별 작품에 내재된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Ready to Wear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이너별 작품의 종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믹스 앤

매치 패션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내재된 패션의 조형미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패션에 유용적으로 대처하며, 패션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예측해 나갈 수 있는 기틀 마련과 디자인 개발 활성화를 위한 트렌드 분석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과 자료수집의 범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믹스 앤 매치 관련 문헌연구로서 국내·외에 출간된 미술, 디자인 및 패션 관련 서적과 국내·외에 발표된 학술논문 등을 고찰하여 믹스 앤 매치의 이론적 배경 및 표현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본 연구의 의도에 적합한 디자이너를 선정하기 위해 대학생 40명으로 이루어진 준전문가집단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수 2인 및 대학원생 3명으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였다. 준전문가집단에게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를 3명 이상 복수응답 하게 한 결과 총 10명의 디자이너(Alexander McQueen, John Galiano, Jean Paul Gaultier, Givenchy, Yoji Yamamoto, Balmain, Christian Dior, Chanel, Balenciaga, Comme des Garçons)가 응답되었다. 전문가집단과의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결과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 연구의 의도에 합당한 대표 디자이너 3인으로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Table 1> 믹스 앤 매치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김보영(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믹스 앤 매치
유희정(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Crossover Coordination에 관한 연구
김철순,유희정(2006)	1996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연구
명은정(2005)	Mix & Match 스타일의 표현경향
이미연(2005)	티셔츠 원포인트그래픽에 나타난 Mix & Match시각이미지분석
김양현(2006)	스포츠즘패션이 활용된 매치리스 스타일
김소정(2006)	Mix & Match 스타일 소재 코디네이션
이민정,이인성(2009)	로맨티시즘 패션에 나타난 믹스 앤 매치 스타일 분석
정현숙(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스타일 분석: 재패니즘 중심
조성희,최인영(2010)	실내디자인에서 Mix & Match의 속성 및 표현특성

〈Table 2〉 Ready to Wear 컬렉션에 나타난 Mix & Match 패션 출현 빈도

컬렉션 디자이너	07S/S	07F/W	08S/S	08F/W	09S/S	09F/W	10S/S	10F/W	11S/S	전체
	n=196	n=128	n=156	n=141	n=137	n=151	n=135	n=111	n=133	N=1408
	믹스 앤 매치 출현빈도(%) 해당 컬렉션에서 1차 분석에 사용된 디자이너의 작품 수(%)									
Alexander McQueen	30 (15.3)	40 (31.2)	45 (28.8)	23 (16.3)	28 (20.4)	40 (26.4)	30 (22.2)	14 (12.6)	14 (10.5)	264 (18.7)
	46 (23.4)	50 (39.1)	54 (34.6)	42 (29.8)	42 (30.6)	45 (29.8)	45 (33.3)	16 (14.4)	36 (27.1)	526 (37.3)
Comme des Garçons	30 (15.3)	28 (21.8)	42 (26.9)	40 (28.3)	28 (20.4)	40 (26.4)	30 (22.2)	25 (22.5)	35 (26.3)	298 (21.1)
	37 (18.9)	35 (27.3)	47 (30.1)	42 (29.8)	39 (28.4)	48 (31.8)	38 (28.1)	37 (33.3)	40 (30.1)	363 (25.8)
Jean Paul Gaultier	60 (30.6)	27 (21.0)	48 (30.7)	30 (21.2)	42 (30.6)	50 (33.1)	45 (33.3)	50 (45.0)	45 (33.8)	397 (28.1)
	83 (42.3)	43 (33.6)	55 (35.2)	57 (40.4)	56 (40.9)	58 (38.4)	52 (38.5)	58 (52.2)	57 (42.8)	519 (36.8)

Garçons 을 최종 선정하였다.

3) 2007년부터 2011년 봄 컬렉션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27개의 Ready to wear 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 3인의 작품사진을 인터넷 패션정보 사이트인 미국 스타일닷컴 (www.style.com)과 패션 잡지 및 컬렉션잡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1차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총 1408장이었으며,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거쳐 컬렉션별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믹스 앤 매치 패션 출현빈도를 조사한 결과〈Table 2〉, 959장의 작품사진에서 믹스 앤 매치 경향이 나타났다. 믹스 앤 매치 패션경향을 보이는 959장의 사진 가운데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거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를 제외한 작품 사진 528장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디자이너에 따른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Mix & Match의 개념

믹스 앤 매치(Mix & Match)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은 것끼리의 짝 지음; 실크블라우스에 조강신발을 신는 따위’(엡센스 영한사전, 2009)로 정의 되어있다. 김소정(2006)은 부조화를 통해 색다른 아름다

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스포티즘, 에스닉, 에로티시즘, 빈티지, 펑크, 오리엔탈 등 온갖 사조를 뒤섞어 놓은 스타일로 믹스 앤 매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민정, 이인성(2009)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복식의 형태, 소재, 색상 등에 조화롭게 믹스 앤 매치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고 이질적이며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을 하나의 새로운 룩과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은 짧은 주기로 유행하는 디자인이 반복되고 다시 재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며, 미래적 경향인 매치리스(matchless)라는 현상에 대한 거부감과 충격을 완화하는 징검다리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김보영, 2005).

다시 말해 믹스 앤 매치는 일반적인 생각과 기준에 지녀왔던 고정관념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내고 서로 상반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 또는 이질적 느낌을 가지는 형태, 색상, 질감, 이미지 등을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두고 의도적으로 그러나 서로 자유롭게 조합시켜 새로운 미의식을 표출해내는 인간의 존재 방식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패션소비자의 행동 양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시대적 문화적 예술적 패션 현상 및 스타일을 이르는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패션뿐만 아니라 회화, 건축, 인테리어 등 조형예술분야나 실용미술 분야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21세기의 대표적 문화 코드라 설명할 수 있겠다.

2. Mix & Match의 사회·문화적 발생 배경

현대는 다원주의 다문화의 시대로 수많은 이미지들이 서로 공존을 허용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틀을 거부하면서 상실된 가치체계의 열등한 이미지들과 필수적인 가치들로 부활시키는데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정지현, 1994). 21세기의 현대 패션은 20세기 말 등장한 탈 이념화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하듯 건축, 음악, 미술, 예술, 문화, 디자인, 사진, 영화 등 모든 문화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했다(윤수정, 2002). 혼돈 된 세기말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도래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양면적이며 극단적인 심리구조가 사회 전반에 흐르면서 이질적 성향을 가진 요소들이 조합되어지거나 절충되어가면서 확실한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뭔가의 새로운 스타일로 확산되어나가기에 되었다.

김문숙, 김현주(이민정, 이인성에서 재인용, 2009)에 의하면 패션은 수많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일 스타일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21 세기의 패션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모습과 스타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다원주의 경향을 띄며 유행의 다양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의 소비 사회는 지위 이동이 가능한 유동적 사회로 더 나은 사회계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강한 문화적 욕구를 지니게 되는데 그러한 욕구를 기호로 표시하고 싶은 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평가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유니섹스 룩, 레이어드 룩, 보이쉬 룩, 믹스 앤 매치 등과 같은 새로운 패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한숙연, 2004). 또한 과거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의 교류가 세계화에 있어서 문화의 공유로 바뀌어가면서 혼성적인 문화 현상 역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윤경, 2002). 이에 이러한 혼성적 불분명 현상들은 서서히 믹스 앤 매치 경향으로 전이되어 가기에 이른다.

21세기를 맞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이미지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만의 문화를 갖고자 하는 노력과 다른 문화 영역에서 그 성취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 되면서 일종의 혼성적 현상인 믹스 앤 매치의 차용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부조화와 이질적인 것의 조합, 추의 영역에 대한 강한 실험적 충동 등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현상의 하나로 작용하여 제한된 범위와 제약을 초월하여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발전되어 감으로서, 상반된 디자인 요소의 결합, 소재의 의외성, 초현실적 요소의 개입, 성적 충동과 모호함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1세기 패션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새롭게 탄생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은 21세기 현대 사회의 반영인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적인 가치관에 의한 발생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Mix & Match의 표현 속성

조성희, 최인영(2010)은 믹스 앤 매치의 표현특성을 시간적, 공간적, 장르적 속성으로 나누어 <Table 3>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김보영(2005)은 믹스 앤 매치 현상에 대해 로맨틱시즘과 스포티브 룩을 결합한 형태가 처음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점차 서구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제3의 세계로 관심을 돌리면서 에스닉한 요소와 다른 감성들의 혼합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로맨틱시즘과 활동적이고 편안한 느낌의 스포티브룩, 그리고 여러 나라의 민족적인 요소를 의상에 도입한 에스닉을 중심으로 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에로티시즘 등의 다른 감성이 결합하여 더욱 다양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현숙(2009)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에스닉 패션 가운데 재패니즘 패션을 중심으로 믹스

<Table 3> Mix & Match의 표현 속성(조성희, 최인영, 2010)

Mix & Mach 의 표현속성	
시간적	- 과거/과거, 과거/현대, 전통/현대의 병치 및 재해석 : 소재, 모티브, 스타일
공간적	- 공간적 개념: 내부/외부, 자연/인공의 병치 및 재해석 - 지리적 개념: 동양/서양, 문화권간, 지역 간의 병치 및 재해석
장르적	- 타장르와의 결합 - 이중형의 창조 : 재료, 조명, 구조요소의 오브제화, 고급/저급, 어른/아이

앤 매치 표현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재패니즘(Japanism)과 스포티즘, 재패니즘과 페미니즘, 재패니즘과 에로티시즘(Eroticism)의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 사례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민정, 이인성(2009)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로맨틱티시즘패션과 스포티즘, 에로티시즘, 에스닉 3개의 감성 스타일에 따라 믹스 앤 매치된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로맨틱티시즘 이미지는 스포티즘 이미지와 가장 많은 믹스 앤 매치 성향을 보였고 다음은 에로티시즘과 에스닉과의 조합으로 결론지었다.

III. Mix & Match 표현 유형에 따른 Ready to Wear 컬렉션 분석

2007년S/S부터 2011년S/S 까지 최근 5년 동안 Alexander McQueen, Comme des Garçons, Jean Paul

Gaultier 가 발표한 총 27개의 Ready to Wear 컬렉션에서 추출한 사진 가운데 믹스 앤 매치 패션의 사례로 최종 선정된 사진 528장을 선행연구를 통해 구분한 Mix & Match 표현속성에 근간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조합, 문화적 조합, 용도적 조합, 아트적 오브제, 이미지 조합의 5가지 표현유형에 따라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이 분류되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세부적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적 조합에 의한 Mix & Match

과거와 현재, 과거와 과거,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 등의 시대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스타일이나 디테일 등을 서로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를 시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으로 분류하였다. 전통적인 시간 또는 시대적 개념이 붕괴되고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의미를 필요할 때 선택 가능한 이미지의 저장고로 간주하며(김주연, 이효진, 2005), 역사적인 패션스타일을 현대와 미래 또는 시대가 다른 역사를 서로 믹스 매

[Fig.1] 2007 S/S
Alexander McQueen

[Fig.2] 2008 F/W
Alexander McQueen

[Fig.3] 2008 F/W
Alexander McQueen

[Fig.4] 2008 S/S
Alexander McQueen

[Fig.5] 2008 S/S
Alexander McQueen

[Fig. 6] 2010 F/W
Alexander McQueen

[Fig.7] 2010 F/W
Alexander McQueen

[Fig.8] 2010 F/W
Alexander McQueen

[Fig.9] 2008 F/W
Alexander McQueen

[Fig.10] 2008 F/W
Alexander McQueen

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3인의 디자이너 가운데 Alexander McQueen의 작품에서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Alexander McQueen은 19세기 에드워드인 시대 유행했던 프록코트(frock coat), 모자, 리플목장식, 크라바장식, H라인 하이웨스트 롱드레스를 블랙으로 표현하였고 스키니 팬츠와 포인트드 하이힐 부츠에 접목시켜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Fig.1, Fig. 2, Fig. 3]. 이집트시대를 연상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과 라피스라줄리의 블루색상과 태양을 상징하는 골드의 색상조합, 이집트 여신의 신비로운 이미지가 돋보이며 미래시대의 여전사의 등장을 연출하고 있다[Fig. 4, Fig. 5].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2010F/W 컬렉션에서는 중세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디테일과 라인을 서로 조합시켜 과거와 과거,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다시 한 번 시도하고 있다. 성당에 남겨진 그림을 디지털 프린트 해 드레스로 접목시키거나[Fig. 6], 레드바탕에 골드 브로케이드 바디스에 현대적 컷팅의 스커트 매치[Fig. 7], 화이트 바탕에 중세 황실의 문양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골드 자수 장식[Fig. 8]등을 통해 시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이 인도여행의 영향으로 구성되어진 2008F/W 컬렉션에서는 영국의 빅토리아여왕과 인도 황실의 전통복식을 조합 하여 레드, 화이트, 고급스러운 골드자수와 여왕의 사진을 직접 디지털 프린팅한 드레스, 인도의 왕관과 보석 등을 현대적 감각의 소재와 조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Fig. 9, Fig. 10]. 이는 동양과 서양의 공간적조합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이나 동시에 디자이너가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로 분류하였다.

2. 문화적 조합에 의한 Mix & Match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 아프리카 및 소수 민족의 문화와 서구 유럽식 또는 미국식 선진 문화와의 혼성 조합을 위해 패션 스타일 및 디테일을 조합시켜 새롭게 생성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양상이 분석되었으며 이를 문화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경향으로 분류하였고 자료의 세부적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exander McQueen은 기모노와 오비장식을 현대적 감각의 팬츠와 혼합한 스타일[Fig. 11]과 일본의 가부끼식 메이크업과 아프리카의 목 높은 메탈 스트랩 장식에 뉴룩을 연상시키는 드레스의 조화[Fig. 12]를 통해 문화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11]은 전체적으로 재패니즘과 엘레강스 이미지가 중첩되어 장르적 조합의 사례인 동시에 문화적 조합의 믹스 앤 매치로 분류하였다.

Jean Paul Gaultier는 2010F/W 컬렉션에서 멕시코, 인디아,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등 다양한 문화적 조합을 시도하였다. [Fig. 13]과 [Fig.15]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조합을, [Fig. 14]는 아프리카문화와 서구의 문화를 서로 조합시키고 있다. 특히 [Fig. 13]은 중국 황제의 복식에 등장하는 구름, 산, 용무늬 등이 있는 황금색 부츠와 녹색 스타킹을 이용한 색상의 대비와 함께 현대적 감각의 더블 브레스티드 피코트(Peacoat)와 크리스탈폴리츠를 이용한 티어드 스커트를 조합하였고 아프리카 꽃무늬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터번을 착용하고 있다. [Fig. 15]는 후드 트레이닝 웨어를 오렌지색 새틴소재 드레스로 제작하여

[Fig.11] 2008 S/S
Alexander McQueen

[Fig.12] 2009 F/W
Alexander McQueen

[Fig.13] 2010F/W
Jean Paul Gaultier

[Fig.14] 2010 F/W
Jean Paul Gaultier

[Fig.15] 2007S/S
Jean Paul Gaultier

스포티즘과 로맨티시즘의 조화를 이루며 장르적조합과 함께 오리엔탈풍의 호랑이문양 자수를 수놓아 문화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경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3. 용도적 조합에 의한 Mix & Match

자켓, 코트, 팬츠, 니트 등의 외의(外衣)스타일과 란제리, 코르셋, 속옷 등의 내의(內衣)스타일이 서로 혼합되어 지거나 용도가 서로 바뀌어져 혼합되면서 특성이 변질 또는 대조적으로 조합되는 경우와 소재의 무겁고 가벼운 용도가 서로 충돌하여 다른 가치를 새롭게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나 이를 용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로 분류하였으며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exander McQueen은 머리장식으로서의 용도가 맞지 않는 투구를 착용시키고, 비대칭형태의 드레스에 블랙과 핑크 색상을 벨트, 슈즈, 투구에 대조적으로 매치시켰으며[Fig. 16], 두 개의 크고 작은 우산을 모자의 착용시켜

[Fig. 17] 용도적 조합에 의한 공간적 믹스 앤 매치 패션 특성을 갖는다.

Comme des Garçons은 2007 컬렉션을 통해 발레리나 드레스 위에 바디스의 앞길만을 블랙 새틴으로 아플리케로 표현하거나[Fig. 18], 앞길 반쪽부분의 안감 패턴을 블랙으로 제작하여 화려한 핑크색 자켓 위에 병치하고 그 위에 장갑을 조합시켰으며[Fig. 19], 블라우스위에 여아용 블라우스 앞길을 병치함으로서 용도적 충돌에 의한 믹스 앤 매치를 시도하였다[Fig. 20]. 2008S/S 컬렉션에서는 빼어로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형클어진 헤어, 블라우스 위에 테일러드 자켓의 반쪽만을 병치시켰으며[Fig. 21], 노란색 드레스 위에 길이와 색상 및 소재가 다른 스커트 조각을 일부분씩만 덧붙여 마치 벨트나 주머니를 연상 시키는 용도적 조합에 의한 믹스 매치를 보여주고 있다[Fig. 22]. Comme des Garçons의 2008F/W 컬렉션에서는 내의와 외의의 대조적 조합, 변형된 신체를 연상시키는 인공적 이질적 소재와 디테일의 충돌을 통한 공간적 조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9S/S 컬렉션에서는

[Fig.16] 2008 S/S
Alexander McQueen

[Fig. 17] 2009 F/W
Alexander McQueen

[Fig. 18] 2007 S/S
Comme des Garçons

[Fig. 19] 2007 F/W
Comme des Garçons

[Fig. 20] 2007 F/W
Comme des Garçons

[Fig. 21] 2008 S/S
Comme des Garçons

[Fig. 22] 2008 S/S
Comme des Garçons

[Fig. 23] 2008 F/W
Comme des Garçons

[Fig. 24] 2009 F/W
Comme des Garçons

[Fig. 25] 2011 S/S
Comme des Garçons

[Fig. 26] 2007 S/S
Jean Paul Gaultier

[Fig. 27] 2008 F/W
Jean Paul Gaultier

[Fig. 28] 2009 S/S
Jean Paul Gaultier

[Fig. 29] 2009 S/S
Jean Paul Gaultier

[Fig. 30] 2010 S/S
Jean Paul Gaultier

핑크색 가발을 쓴 모델의 얼굴에 레드색상의 하트점이 찍힌 베일 마스크를 착용시켰고 담요와 프린팅을 통해 용도적 충돌을 통한 믹스 매치를 선보이고 있다. [Fig. 23]은 스커트와 자켓의 부분적 스트랩 처리를 통해 외부와 내부의 충돌을 보여주며, [Fig. 24]는 짧은 트렌치코트 아래에 두꺼운 체크무늬의 담요를 매치시켰다. [Fig. 25]는 물방울무늬와 회색 톤의 드레스 두벌이 하나로 연결되어 케이프로 전환되는 용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Jean Paul Gaultier의 컬렉션에는 내의와 외의의 전복을 통한 용도적 조합이 자주 등장하였다. [Fig. 26]은 코르셋을 드레스와 매치시켜 겹옷으로 착용시키고 있으며, [Fig. 30]은 어깨패드와 내의용 코르셋과 브라를 외의로 표출시켜 용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을 발표하였다. [Fig. 27]은 실크새틴 드레스 안에 터틀넥 울스웨터를 착용함으로써 소재의 용도적 충돌과 내부와 외부의 병치를 통한 믹스 앤 매치를 시도하였고, [Fig. 28]은 란제리와 새틴드레스가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29]는 팬츠 위로 바디수트를 착용시킴으로서 내의와 외의의 충돌을 통한 용도적 조합의 믹스 앤 매치 패션경향으로 분석되었다.

4. 아트적 오브제 조합에 의한 Mix & Match

자연물이나 인공물과 의상이 병치되어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아트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작품의 형태, 소재, 색상 등의 자유로운 조합을 통해 생성된 스타일 및 디테일이 함께 혼용되어 미술적 의상으로서의 접근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특히 인체를 왜곡시키는 오브제의 조합을 통해 기묘한 스타일의 패션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아트적 오브제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로 분류하였으며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exander McQueen은 자연물인 새, 나비, 나무 등과 금속, 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인공조형물과 의상을 접목시켜 작품의 공간적 믹스 앤 매치 패션을 발표하였다. [Fig. 31]은 자연물인 새의 날개를 그대로 상의에 형상화하였으며, [Fig. 32]는 나비를 형상화시킨 헤드드레스를 착용시키고 이를 클래식 드레스와 병치시켰다. [Fig. 33]은 과도하게 부풀린 가발위에 자연의 나뭇가지를 이용해 새의 부리와 발이 표현되어 있는 인공 조형물을 장식함으로서 착용된 의상과의 오브제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은 특히 동물, 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인공적소재의 결합을 통한 아트적 조합을 자주 시도하였는데, [Fig. 34]는 광물과 동물의 형상을 화려한 색상의 디지털프린팅으로 재구성한 드레스를 착용시킨 경우이다. 특히 얼굴과 머리카락 전체에 망사를 덮어 씌워 신비로운 자연물과 인공적 퓨처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Fig. 36]은 자연물인 파충류의 가죽을 다양한 색상조합을 통해 인공적으로 디지털 프린팅한 소재를 이용해 작품으로 선보였으며 두 개의 뿔을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과 파충류 표피 느낌을 갖는 갑옷과 같은 슈즈를 매치시켜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아트적 오브제 조합의 믹스 앤 매치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6]은 미래적 터치인 인공소재인 비닐과 자연물인 엘로우 색상의 입체적 플라워 소재를 조합시켰으며, [Fig. 37]과 [Fig. 38]은 조형적으로 제작된 입체형 바디스를 부드럽고 우아한 스커트와 조합시켜 아트적 오브제를 형상화 시키고 있다. [Fig. 39]는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는 플라스틱 인공 조형물을 탑 드레스에 매치시켰으며, [Fig. 40]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오브제화 하여 일련의 팝아트나 키치적

요소를 가미한 아트적 요소의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Comme des Garçons은 구성요소의 아트적 오브제화 특성을 가진 믹스 앤 매치 패션을 매우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Fig. 41]은 강렬한 노란색의 드레스모양을 블라우스 위에 가미해 아플리케 형식으로 매치시켜 유희를 통한 구성요소의 아트화를 시도한 믹스 앤 매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Fig. 42]와 [Fig. 43]은 신체왜곡을 통한 디자인구성 요소인 소재와 색상을 통한 오브제적 믹스 앤 매치를 시도한 사례로서 길게 뻗아 늘어뜨린 블랙 헤어피스와 여러 겹의 화이트 오간자 패딩 드레스 위에 블랙 테이프를 함께 조합시켰으며, 과도하게 부풀린 어깨와 오렌지색 스커트 아래에 프릴장식이 있는 가터 스트랩 하의를 블랙 색상으로 조합시키고 있다. [Fig. 44]는 가발을 과도하고 기괴스

[Fig. 31] 2008 S/S
Alexander McQueen

[Fig. 32] 2008 S/S
Alexander McQueen

[Fig. 33] 2008 F/W
Alexander McQueen

[Fig. 34] 2009 S/S
Alexander McQueen

[Fig. 35] 2010 S/S
Alexander McQueen

[Fig. 36] 2009 S/S
Alexander McQueen

[Fig. 37] 2007 S/S
Alexander McQueen

[Fig. 38] 2007 F/W
Alexander McQueen

[Fig. 39] 2008 S/S
Alexander McQueen

[Fig. 40] 2009 F/W
Alexander McQueen

[Fig. 41] 2008 S/S
Comme des Garçons

[Fig. 42] 2008 F/W
Comme des Garçons

[Fig. 43] 2008 F/W
Comme des Garçons

[Fig. 44] 2009 S/S
Comme des Garçons

[Fig. 45] 2010 F/W
Comme des Garçons

럽게 높이 부풀린 화이트 헤드 드레스에 소재의 표면감과 색감이 서로 다른 그레이와 블랙색상의 육각형 비닐을 서로 연결시켜 마치 축구공의 패턴을 이용한 인공적 재료의 조합을 통한 아트적 오브제를 통한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Fig. 45]는 작은 스프링 뺨죽거리는 효과의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과 인체의 변형을 패딩과 소재의 다양성을 통해 아트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Fig. 45]는 체크무늬를 서로 병치하고 과도한 패딩을 통해 가슴이 튀어나온 배처럼 보이도록 표현함으로써 의상을 하나의 아트적 오브제화 특성을 지닌 믹스 앤 매치 사례라 하겠다.

5. 이미지 조합에 의한 Mix & Match

둘 이상의 이미지가 서로 조합되어 작품의 스토리가 중첩되는 경우로서 스포티즘 로맨틱시즘, 퓨처리즘, 에스닉, 페미니즘, 에로티시즘, 댄디즘, 클래식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서로 조합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미지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대용은 다음과 같다.

Alexander McQueen은 이미지간의 조합을 통한 믹스 앤 매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46]은 클래식하면서도 매니쉬한 이미지의 하의와 핑크색 러플 드레스를 통해 로맨틱 에로티시즘 이미지를 서로 조합시켰으며, [Fig. 47]은 에조틱한 나무의 껍질 질감을 브라운 톤의 프린팅으로 표현한 팬츠와 코트를 조합하고 여기에 페미닌한 이미지의 화이트 자수 장식이 있는 비치는 실크 탑을 매치함으로서 이질적 소재의 혼용을 통한 McQueen 특유의 드라마틱한 믹스 앤 매치 효과를 선보이고 있다. [Fig. 48]은 페미닌한 에로티시즘적 이미지의 비치는 블랙 망사와 그 위에 놓인 꽃무늬 자수와 댄디한 퓨처리즘적 이미지 군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Fig. 49]는 퓨처리 이미지와 에스닉이미지를 조합시켰으며, [Fig. 50]은 퓨처리 이미지에 페미닌하면서도 소피스티케이티드 한 이미지가 서로 조합되어 소재와 색감의 대비와 로맨틱한 블루 슈즈를 통해 이미지에 의한 조합을 이루어내고 있다.

Jean Paul Gaultier는 최근 5년간의 컬렉션에서 로맨틱

[Fig. 46] 2007 S/S
Alexander McQueen

[Fig. 47] 2009 S/S
Alexander McQueen

[Fig. 48] 2009 S/S
Alexander McQueen

[Fig. 49] 2010 S/S
Alexander McQueen

[Fig. 50] 2010 S/S
Alexander McQueen

[Fig. 51] 2007 F/W
Jean Paul Gaultier

[Fig. 52] 2007S/S
Jean Paul Gaultier

[Fig. 53] 2007S/S
Jean Paul Gaultier

[Fig. 54] 2007S/S
Jean Paul Gaultier

[Fig. 55] 2009F/W
Jean Paul Gaultier

[Fig. 56] 2008 F/W
Jean Paul Gaultier [Fig. 57] 2010 S/S
Jean Paul Gaultier [Fig. 58] 2010 F/W
Jean Paul Gaultier [Fig. 59] 2008 S/S
Jean Paul Gaultier [Fig. 60] 2011 S/S
Jean Paul Gaultier [Fig. 61] 2011 S/S
Jean Paul Gaultier [Fig. 62] 2008 S/S
Comme des Garçons [Fig. 63] 2010 S/S
Commedes Garçons [Fig. 64] 2010 S/S
Commedes Garçons [Fig. 65] 2011 S/S
Commedes Garçons

이미지와 전통 클래식 이미지의 중첩, 스포티브 이미지와 에스닉, 스포티브와 로맨틱 이미지를 조화시키는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자주 선보이고 있다. [Fig. 51]은 브리티쉬 트레이디셔널 이미지를 대표하는 베이지색상의 트렌치 코트와 함께 에로티시즘과 로맨틱시즘이 강조된 비치는 블랙 레이스 상의와 체크무늬의 페미닌한 롱 스커트의 이미지 조화를 통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52]와 [Fig. 53]은 화려한 스팅글장식이나 새틴으로 제작되어 로맨틱시즘 이미지가 강조된 소재를 이용해 스포티브한 이미지의 트레이닝을 제작하고 여기에 엘레강스 이미지의 드레스를 매치시키고 있으며, [Fig. 54] 역시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페미닌한 프린지 장식의 티어드 스커트가 서로 혼성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Jean Paul Gaultier의 2009년과 2010년 컬렉션에서도 스포티브한 이미지와 페미닌한 이미지간의 중첩을 통한 믹스 앤 매치가 자주 시도되었다[Fig. 56]. 스포티브한 팬츠와 로맨틱한 핑크 색상이 강조된 클래식 자켓을 매치하고 하나로 틀어 올린 헤어의 강한 웨이브가 흔들리면서 경쾌

한 스포티브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Fig. 57]. [Fig. 58]은 스트라이프 소재의 테일러드 자켓과 팬츠 슈트에 에스닉한 드레스와 머리장식, 휘어진 신발코 모양을 가진 에스닉한 부츠 등을 믹스 매치한 사례이며, [Fig. 59]는 에스닉한 이미지와 스트라이프 스타킹의 스포티브함을 매치시킨 경우이다. [Fig. 60]은 80년대 핑키 디스코 이미지의 헤어와 캐주얼 스포티브 이미지의 데님소재 자켓과 스커트에 에로티시즘 이미지가 강한 비치는 레이스 소재의 병치를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Fig. 61]은 컨서버티브 이미지의 자켓에 에조틱한 프린트 소재의 롱스커트를 매치시켜 이미지 조합에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의 사례로 분석되었다.

Comme des Garçons은 상반된 이미지의 조합으로서 로맨틱한 여성성과 댄디한 남성성의 이미지를 반씩 나누어 소재, 색상, 디테일을 조합하여 블랙과 블루로 강렬하게 매치시키고 있으며[Fig. 62], [Fig. 63]과 [Fig. 64]는 높이 부풀린 연보라색과 연두색의 헤드드레스와 전체적으로 스포티브한 이미지에 키치적 소재의 매치와 로맨틱한 드

레스의 조합을 이루며 하늘거리는 소재의 패미닌한 드레스와 탑위에 이질적 소재인 가죽으로 만들어 제시된 어깨 장식품과 힙 장식은 매니쉬함과 미래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추어 이미지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26]은 클래식한 이미지의 그레이 자켓에 로맨틱시즘의 대표적 장식아이템인 플로랄 모티브를 어깨에 흘러내리게 하고 발레리나 스커트를 드라마틱하게 조화시켜 이미지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를 시도하였다.

6. Mix & Match 패션 경향 분석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Ready to wear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이너 3인의 믹스 앤 매치 표현 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시간적 조합 유형은 과거와 과거, 과거와 현대, 과거와 미래의 조합이 두드러졌으며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에서만 그 사례가 분석되었다. 둘째, 문화적 조합 유형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조합과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적 병치가 관찰되었으며, Alexander McQueen과 Jean Paul Gaultier의 컬렉션에서만 그 사례가 나타났다. 셋째, 용도적 조합 유형으로 내의와 외의 및 소재의 이질성과 같은 용도 불일치의 조합이 특징적이며 3인의 디자이너 모두에게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넷째, 아트적 오브제 조합 유형으로 구성요소의 오브제화를 통한 아트와 의상의 장르적 조합 형태를

선보였으며 Alexander McQueen과 Comme des Garçons의 컬렉션에서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Comme des Garçons은 아트적 오브제 조합 유형의 작품이 가장 많이 보이는 디자이너였다. 다섯째, 서로 다른 이미지들의 조합을 통한 믹스 앤 매치 패션 유형으로서 3인의 디자이너 모두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Jean Paul Gaultier 디자인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분석되었다.

IV. Mix & Match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Ready to wear 컬렉션에서 디자이너 3인: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Garçons의 믹스 앤 매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외적 조화를 통한 해학적 미의식, 탈 형식을 통한 자율 조형적 미의식, 실험적 표출을 통한 전위적 미의식에 관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1. 의외적 조화를 통한 해학적 조형미

믹스 앤 매치 패션 현상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과

<Table 4> Ready to wear 컬렉션에 나타난 Mix & Match 패션 경향

유형	특성	형태 / 소재 / 색상	디자이너
시간적 조합	과거/과거 과거/현대 과거/미래	형태 : 드레스, 자켓, 셔츠, 망토형코트 소재 : 디지털프린트 비즈/금사/자수장식 색상 : 레드, 골드, 화이트, 블랙	Alexander McQueen
문화적 조합	동양/서양 아프리카	형태 : 드레스, 자켓, 팬츠, 코트, 모자, 셔츠 소재 : 디지털프린트, 체크, 비닐, 플리츠 색상 : 블랙, 화이트, 핑크, 옐로우, 골드, 레드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용도적 조합	외의/내의 이질소재	형태 : 자켓, 코트, 팬츠, 니트, 란제리, 코르셋, 속옷 소재 : 새틴, 울, 오간자, 레더, 플라스틱 색상 : 옐로우, 핑크, 블루, 그레이, 레드, 블랙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Garçons
아트적 오브제 조합	구성요소 오브제화	형태 : 드레스, 코트, 자켓, 팬츠, 셔츠 아트헤어 소재 : 레디, 퍼, 깃털, 꽃, 비닐, 자카드, 쉬폰, 금속, 플라스틱, 울, 자수, 프린팅, 색상 : 블랙, 화이트, 오렌지, 옐로우, 레드, 오렌지, 그레이, 그린, 핑크	Alexander McQueen Comme des Garçons
이미지 조합	스포츠 에스닉 로맨티시즘 클래식	형태 : 코트, 자켓, 드레스, 팬츠, 모자, 셔츠 소재 : 울, 데님, 레이스, 오간자, 레더, 쉬폰 색상 : 연두, 그린, 브라운, 블랙, 화이트, 블루 퍼플, 그레이	Alexander McQueen Jean Paul Gaultier Comme des Garçons

기대에서 어긋나는 의외적인 것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전형적인 맥락에서 이탈되었을 때 발생하는 흥미로움은 특정한 양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재치감과 극적인 느낌을 주어 일종의 아름다움으로 이해될 수 있다(안선경, 1994). 다시 말해 기존의 사고나 관습과는 대조되는 감성적 혼합을 통해 얻어지는 놀라움, 흥미, 재미를 느끼게 하는 해학적 의외성과 서로 다른 감성이 결합되어 뜻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대, 과거와 미래와 같은 시간적 조합과 동양과 서양의 충돌과 같은 문화적 조합의 대조적 형태 속에서 감성적 흥미와 해학의 미를 발생시킴으로서 부조화 속의 의외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도적 조합을 통해 의외적 장소에서 변질된 용도로 만나는 패션 스타일이 흥미와 유머를 창출해내는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2. 탈 형식을 통한 자율적 조형미

현대 패션 스타일에서 나타난 믹스 앤 매치는 세기말에 나타난 인간의 심리적인 불안과 혼돈의 양상 속에서 기존의 관습이나 형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탈 형식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미학이나 사고체계, 사회문화적 가치가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실험의 성격을 보이는데(김민자, 1998), 21세기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미의식 욕구에 의해 다양하고 참신한 표현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도적 조합과 인공물과 자연물 등을 자유롭게 병치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대조를 이루는 감성의 결합을 활발히 자율적으로 조합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미지간의 조화를 통해 어느 한 스타일에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조합시켜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채, 질감 및 스타일을 과거의 형식과 전통적인 조화와 균형의 비율을 파괴함으로써 탈 형식을 통한 자율적 조형미를 구현하려는 특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시대적 조합과 문화적 조합의 병치 또는 이미지 조합과 문화적 조합의 표현 유형적 카테고리마저 다시 믹스 앤 매치되는 사례처럼 형식의 자율성은 디자이너들의 지속적 창작성 증대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실험적 조합을 통한 전위적 조형미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믹스 앤 매치 성향은 사회의 보

수적인 제도나 관습의 굴레를 벗어나는 일종의 혁신적인 시도이며, 전위적·미래지향적·실험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스타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심리가 디자인에 반영된 것으로서 형태의 파괴, 극적인 색상대비, 눈에 띄는 질감의 이질적 표현, 상반된 이미지의 불확정적 결합 등의 불일치의 조합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혁신적 재창조의 욕구와 만족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트적 오브제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표현 유형에 의한 패션 의식 표출을 통해 이를 발산시키고 있다. 특히 미래주의적 테크놀로지와 인간중심의 자연주의적 사고가 함께 접목시켜져 인공과 자연물의 끊임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적 조화와 개발을 통해 오브제로서의 구성적 결합을 이루어 패션으로 제시되는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은 더욱더 전위적이며 미래지향적 형태로 표출되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IV. 결론

2007년부터 2011년 봄/여름 컬렉션까지 최근 5년 동안, Alexander McQueen, Comme des Garçons, Jean Paul Gaultier 가 발표한 총 27개의 Ready to Wear 컬렉션에서 믹스 앤 매치 패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 문화적, 용도적, 아트적 오브제, 이미지의 5가지 조합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의 특성은 과거와 현대, 과거와 과거,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패션스타일이나 디테일을 서로 조합하여 표현하는 패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문화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은 크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조합과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적 병치가 관찰되었다.

셋째, 용도적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의 특성은 내의와 외의 및 소재의 이질성과 같은 용도 불일치의 조합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아트적 오브제 조합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패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구성요소의 오브제화를 통한 아트와 의상의 장르적 조합 형태를 선보였다.

다섯째, 상반된 패션 이미지들 간의 조합을 통한 믹스 앤 매치 패션경향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추출한 믹스 앤 매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의외적 조합을 통한 해학적 조형미, 탈 형식을 통한 자율적 조형미, 실험적 조합을 통한 전위적 조형미로 연구되었다.

주제어: 레디투웨어, 믹스 앤 매치패션,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 폼즈 데 가르송

참 고 문 헌

- 간문자. (1995).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
- 권상구. (2002). **기초디자인**. 서울: 미진사, 91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1). **복식**, 37, 104
- 김보영.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믹스 앤 매치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 김문숙, 김현주. (1997).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크로스오버.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논문집**, 158.
- 김소정. (2006). Mix & Match 스타일 소재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 김양현. (2006). 스포티즘패션이 활용된 매치리스 스타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3, 50-56.
- 김윤경. (2002). 퓨전 디자인의 속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 김정애. (1996).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이버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
- 김주연, 이호진. (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112-113, 117-123.
- 김철순, 유희정. (2006). 1996년 이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3), 457-468.
- 명은정. (2005). Mix & Match 스타일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30.
- 안선경. (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 유희정.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Crossover Coordination에 관한 연구: 1996년부터 2004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12-50.
- 윤수정. (2002). 패션 트렌드의 다중화, 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 이민정, 이인성. (2009). 현대 로맨틱시즘 패션에서 나타난 믹스 앤 매치 스타일 분석. **복식문화연구**, 17(4), 653-662.
- 이미연. (2005). 티셔츠 원포인트그래픽에 나타난 Mix & Match시각이미지분석. **복식문화연구**, 13(5), 777-789.
- 임영자, 권진. (2002)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2(5), 217-229.
- 엡센스영한사전. (2009). 서울: 민중서림, 1614.
- 정지현. (1994).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 정현숙.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스닉스타일 분석. **복식문화연구**, 17(6), 1047-1058.
- 조성희, 최인영. (2010). 실내디자인에서 'Mix & Match'의 속성 및 표현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1), 55-62.
- 한숙연. (2004). Mix & Match 컨셉을 적용한 복합문화공간 실내계획.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접 수 일 : 2010. 09. 02.
수정완료일 : 2010. 12. 13.
게재확정일 : 2011. 01. 27.